

【 사회 】

■ 불법 제본 퇴치 운동 벌이는 전남대 동아리 '레스투'

“복사본 안사야 책값 내리죠”

신학기를 맞아 대학 주변에서 각종 서적을 복제하는 불법제본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 '진본 책을 구입해 책값을 낮추자'는 운동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대 창업동아리 '레스투(restu)'는 최근 교내에 '불법제본을 근절하자'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6개와 팸플릿 300여 장을 부착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카페(http://cafe.daum.net/restu01)를 만들어 '당당하게 책을 파자-레스투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이 불법제본 책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진본 책 구매율이 떨어지고 자연히 책값이 올라 새 책을 사는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만큼 진본 책을 구입·사용해 그 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레스투' 회원 20명은 먼저 대학가의 불법복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4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단 1권이든 책을 산 경험이 있는 학생이 75.9%(342명)에 달했고, 구입한 책의 절반 이상이 제본 책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50%에 이르렀다. 대학가에 여전히 불법제본 문화가 만연해 있는 실태를 확인한 레스투 회원들은 궁리 끝에 전공서적을 공동구매하면 10%나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우선 공동구매로 눈길을 돌렸다. 전공서적을 깨끗이 사용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깨끗한 헌책이 있는데 굳이 불법제본된 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레스투'는 경영대학은 물론 다른 단과대학 재학생들도 수강을 많이 하는 경영대학의 6개 교양과목 교과서를 대상으로 공동구매에 착수했다. 결과는 참패였다. 500권을 신청해야 당초 기대했던 10% 인하가 되지만 20여 권밖에 신청되지 않은 것이다. 홍보가 부족했고, 상당수 학생들 사이에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진본 책을 사야하느냐는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레스투'는 올 2학기부터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전단지과 플래카드 달기 등 온·오프라인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또 학생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제본의 문제점과 진본의 장점을 부각시킬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현(27·경영학부 3년) 씨는 “학생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진본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캠페인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교과서 공동구매 추진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 나서



대학가에 만연해 있는 불법 복제문화 근절을 위해 진본 책 구입 운동을 펼치고 있는 '레스투' 회원들이 14일 전남대 후문 입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문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청 인근에 해바라기 공원 만든다

올 가을 광주시청 인근 유희지 1만 평이 노란 해바라기꽃으로 뒤덮일 전망이다. 광주시는 14일 “오는 10월 제88회 전국체전과 제2회 디자인비엔날레를 맞아 시청 주변 유희지 2곳에 해바라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원 조성지는 시청 앞 광주지방방법원 등기소 유희지와 시청 뒤 재정경제부 소유 유희지 1만 평이다. 시는 시청사 옥상에서 모종을 기른 뒤 공공근로 사업형식으로 해바라기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체전과 비엔날레 기간 동안 해바라기 공원에서는 음악회·시화전·바이오텔 자동차 전시 등 해바라기 주제를 한 행사들을 개최해 문화예술과 산업이 한데 어우러진 가을 풍경을 연출한다. 시는 또 이곳에서 수확한 해바라기 씨앗을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윤진섭·장석원·데이비드 엘리엇·로랑 헤기

예술총감독 4명으로 압축

광주비엔날레 선정위원

광주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지역 미술계에서 예술총감독을 배출하게 됐다. 광주비엔날레가 국내외 인사 각각 1명을 예술총감독으로 선정하는 공동감독제를 도입한 가운데 국내 감독 후보 2명이 광주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로 압축됐기 때문이다. (가)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선정소위원회(위원장 황영성)는 14일 ▲윤진섭(호남대 예체능대)교수 ▲장석원(전남대 예술대)교수 등 국내 인사 2명과 ▲데이비드 엘리엇(David Elliott) 터키 이스탄불 현대미술관장 ▲로랑 헤기(Lorand Hegyi) 프랑스 생테티엔느 미술관 관장 등 해외 인사 2명을 '2008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 후보로 선정했다. 재단 측은 내달 9일 이사회를 열고 주제 및 전시 구성안 발표 등 프리젠

테이션을 통해 2명의 공동감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내 후보로 추천된 윤 교수는 '제1회 포천 아시아 미술제' 조직위원장 겸 예술감독, '제22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커미셔너, '제3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를 맡았다. '제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지낸 장 교수는 부산비엔날레 '퍼포먼스 인 부산'커미셔너,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를 역임했다. 해외 감독 후보로 뽑힌 데이비드 엘리엇씨는 스웨덴 말뾰 미술관, 도쿄 모리미술관을 역임, '아프리카 리믹스', '도료-베를린' 등 주목할 만한 기획전전을 진행했다. 부다페스트대학 미술학 박사인 로랑 헤기씨는 유럽 아시아 조각 트리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를 맡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포근한 봄바람 3월 15일 (음 1월 26일) <전국날씨> 날씨예보 표와 지도

곰장어잡이 '위험 조업'

국내 연안 자원 줄어든다 일본 영해 출어 4척 나포 최근 국내 연안의 곰장어(사진) 자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어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영해 가까이에서 곰장어 조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경남 통영선적 장어잡이 어선 4척이 곰장어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일본 영해에 들어갔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한꺼번에 나포됐다. 나포된 어선들이 가입된 통영 근해통발수협 등에 따르면 과도한 어획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히는 곰장어 자원이 격감,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자원량이 풍부한 동해 쪽 일본 측 바다까지 출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동해에 접한 시마네(島根)현 오키(隠岐)제도 등 일본 측 수역은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90~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곰장어 어선들의 주조업지여서 정보가 많고 조업 노하우가 쌓여 있어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일본인은 곰장어를 즐기지 않아 어획량과 소비가 거의 없어 한 국내와 비교해 자원량이 풍부하다. 전국적으로 갯장어를 잡는 어선은 통영을 중심으로 12척에 불과하다. /연협뉴스

▲곰장어(머장어·in-shore hagfish)=밤에 활동하는 아행성 어류로 주로 바다 밑 모래 또는 진흙 바닥에 몸을 파묻고 지낸다. 물고기나 오징어에 달라붙어 살과 내장을 빨아먹고 산다. 통발·그물을 사용하여 포획하며 체내지방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잡히는 것이 맛있다. 단백질·지방·비타민 A가 풍부하며, 곱질(가죽)은 지갑·손가방 같은 가죽 제품을 만들 때 이용된다.

“건전한 노동운동 동참합시다”

광주시는 14일 시청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불법부당한 주장과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도 건전한 노동운동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이날 '광주시민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시청사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은 용역회사에 채용됐기 때문에 시가 이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청소용역 계약 만료 뒤 민노총 소속 용역업체 직원 23명은 고용승계만을 주장하며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은 또 “지난해 FTA반대 시위에서 발생한 과격시위는 투자유치와 일 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살리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합법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노총 소속 시청 용역 직원 23명은 지난 7일 광주시장실 앞 보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 농성을 벌인데 이어 9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전남 '학교 폭력' 퇴학·정학 늘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전남도내 학교에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퇴학 등 강력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63건에 달했던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06년 432건으로 31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 움직임이 강하게 일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 등 강력조치는 증가했다. 과거 정학에 해당하는 출석정지는 2005년 15건에서 2006년 41건으로 급증했으며 퇴학도 2005년 3건에서 2006년 5건으로 증가했다. 퇴학은 가능한 한 학생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구제한다는 방침이지만 2건이 늘었다. 다소 가벼운 조치인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4월 2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제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 출신 143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백마트 횡단점 옆 광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4월 2일 첫진도 시작반(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희소식 수료 한금과정 기강주부 실업자 지방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특화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학원 1위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앞)

국가직/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김중규 광주직강! 단/과/교/수 김중규 교수님 개강/일 2007년 4월 5(목), 4월 12(목)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8:00~22:20 수/강/성/원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개강 4월 5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지방직대비 공무원 800여명 2007년 상반기 일문제풀이 =한빛수퍼파워팀= 일문제풀이 한빛이 하면 다들 다들! 개강 4월 2일 (월/목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